

월간양계 50주년/ 량(量)과 질(質)의 시대/격(格)의 시대로

이번 11월호를 발행하면 월간양계는 발간 50년을 맞이하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을 꾸준히 발행해온 제작진과 편집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최근 『월간양계』와 비슷한 시기에 창간을 했던 국민 교양지라고 했던 『월간샘터』가 경영난으로 발행 49년만에 새로운 경영주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보니 더욱 그렇다.



김영옥

(주)기술과창조 상임고문
본지 초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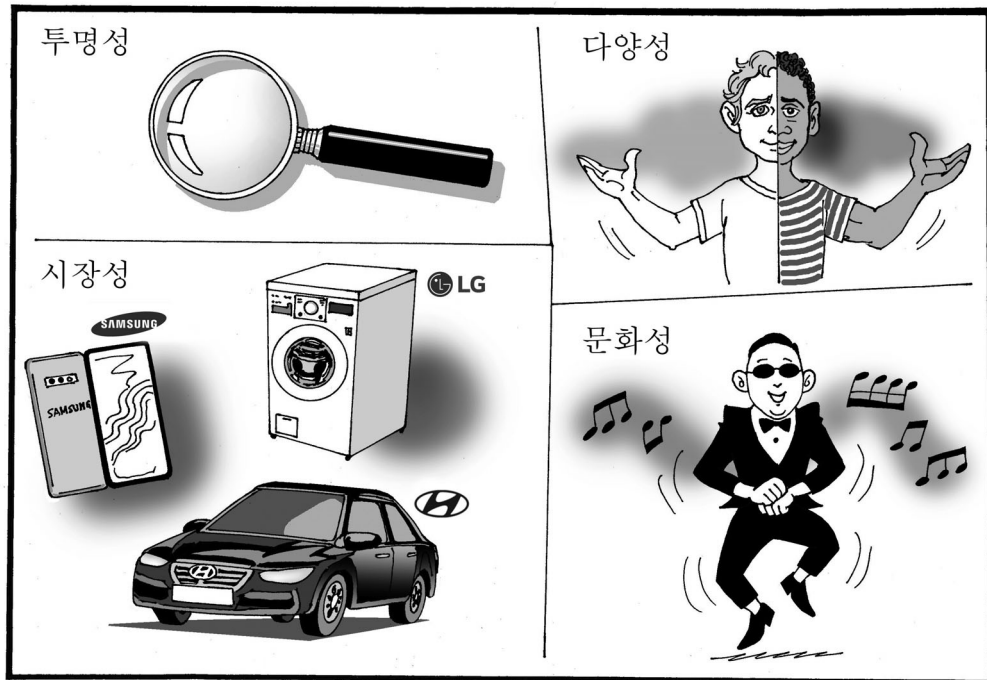
지난 50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는 물음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되새김질해보니, 1969년 산업 태동기에서 출발하여 양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잡지의 부수를 늘리고 볼륨을 늘리는데 즉 양(量)적 성장에 치중하여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웬만큼 자리를 잡은 후 질(質)적 성장을 시도하여야 되는 시점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개혁을 필요로 하는 IMF 시대가 닥쳐와 모든 허세와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즉 「IMF」 시대 정신에 충실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시대를 겪어내게 되었다. 더 많은 성과를 낸 주체가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가는 「IMF」의 시대 정신 구현을 그동안 형식주의나 허례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의 생산 소비구조를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들었고, 특히 「김영란법」 이후 사회개혁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느끼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위기감은 최고조로 고조되어 이는 그대로 촛불혁명, 적폐 청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여망 등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되었다.

2069년-향후 50년 우리의 시대 정신은?

지난 50년이 량과 질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품격(品格)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발전과 세계화의 흐름에 있어서 량에서 질로, 질에서 격(品格)으로는 세계화의 추세이다. 전 세계가 세계화 추세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4가지 특성을 파악하고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2018년 월간양계 신년호에서 세계경영원의 전성철 원장께서 피력하신 “세계적 기업의 특성”이라는 글을 원용한 바 있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다.



▲ 글로벌 스탠다드의 4가지 특성

세계적 기업이나 세계화된 국가들은 반드시 다음의 4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이들 특성 때문에 세계화되었는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계화하고자 하는 나라들이나 기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특성(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투명성 확보

최근 국내에서 큰 진통을 겪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파동은 국내 사법부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큰 고비였다. 해외에서 유능한 인재들로 평가받는 한국 사법부의 평가는 전관예우나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고 할 김&장의 언급에 이르면 그 명성이 무색해진다. 한 나라의 최고의 기본법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관리하는 사법부에서부터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국민들의 저항 역시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여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1969년 현재로서는 대단히 멀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지만 2069년 향후 50년 후 세계가, 특히

남북관계가 부분적이지만 통합의 단계로 들어선다면(현 체재 인정 범위 내에서) 경제 우선, 소통과 교통 왕래 우선 형식으로 시장이 확장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그 가능성이 커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품격 역시 전 세계의 경제 주체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흡수되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투명성 여부는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그 순위가 30위였다(덴마크는 88점, 싱가포르 85점, 홍콩 76점, 일본 73점). 북한은 14점으로 176위로 최하위(조사대상 국가 177개국 중 최하위)로 국가 전체가 뇌물로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 빠른 시일 내 정상 국가로 개조하여 남북이 싱가포르 수준의 국가 운영형태를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2. 다양성

세계화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한국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항목은 다양성을 갖춘 인재풀을 갖추는 길이다. 이는 마치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다재다능한 인재들이 새로운 제안과 연구를 통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연상하면 금방 상상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AI)과 제 4차 산업의 개발은 IT에 강한 한국인에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름이다. 인공지능기기개발, 줄기세포 이식 등 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터전은 이미 열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한의학과 최신 서양의학의 융합에 의한 신의학의 발달 등 동물유전학적으로 이종 교배에 의한 하이브리드는(잡종 강세) 순혈 교배에 의한 순종번식보다 이미 더 강한 신품종의 개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시장성

세계화의 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시장성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이들은 아무리 인위적으로(제도적, 법률적) 바꾸려고 해도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찾게 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들은 시장의 요구(Market Needs&Wants)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존재하게 된 것이다(심지어 성경시대의 창녀들조차도).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연구하고 이에 맞추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및 회사의 R&D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시장의 필요에 맞는 제품 및 프로그램의 창조여야 할 것이다.

4. 문화성

글로벌 세상에서 제대로 된 문화상품이 갖는 시장점유율의 파괴력은 감히 상상을 불허한다.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BTS나 LPGA에서 항상 상위권을 휩쓰는 한국 여자 골퍼들, U-20의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등의 활약과 현대차, 삼성 제품들과 LG 세탁기 등 세계 최고의 제품 등이 세계 곳곳을 휩쓰는 것을 보면서 기술력과 문화가 융합이 되었을 때 시장 점유율과 제품들의 가성비가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다.

끝으로 향후 50년간 우리의 시대정신은 품격의 시대 곧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식을 가지고 매진한다면 찬란한 미래를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